

VI. 主要 政策 이슈 解説

○ 노동부, 고급 인력 풀(Pool)제 7월 시행(4.9)

- 민간 기업이나 정부 투자 출연 기관에서 정년·조기 퇴임하는 임원급이나 중견 간부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재활용
- 이를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고급인력정보센터를 설치, 고급 인력 풀 업무를 총괄 운영

○ 재정경제원, 외환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6월 시행(4.8)

- 해외 이주 정착비 한도 확대(현재 가구주 20만 달러, 가구원 1인당 10만 달러 → 가구주 40만 달러, 가구원 1인당 20만 달러)
- 전년도 수출 실적의 10% 이내로 되어 있는 대기업의 수출 선수금 영수 한도도 15%로 증가됨

○ 정부, 한·미 통신 협상 타결(4.2)

- 통신 장비 조달 계약 체결시 무리한 기술 이전 요구, 통신 장비에 대한 외국업체 차별 조치 등 외국 통신 업체에 차별없는 시장 접근 허용

○ 통상산업부, 자본재 산업 육성 전략 품목 311개 지정(4.2)

- 올해 안으로 총 2천억 원의 산업 기술 개발 자금을 연리 7%로 전체 개발비의 80%를 용자 지원
- 개발에 성공하여 양산 단계에 있으나 설비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67개 품목을 고시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은행의 시설 자금을 우선 지원

○ 통상산업부,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 대책 마련(3.28)

- 외국인들에 대해 주거용 부동산 매입 및 의료 보험 가입 허용
- 전기, 전자, 정보 등 고도 기술 분야의 기업을 선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 지속

○ 재정경제원, 97년 예산 72조 규모로 편성(3.28)

- 일반회계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규모가 96년보다 14% 정도 증가
-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정원과 경상 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공 부문에도 목표 제시와 성과 평가 등의 경영 개념 도입

○ 재정경제원, 4월중으로 은행지준율 평균 1.5% 인하 방침(3.27)

- 은행 경영의 부담과 예금자 보험의 신설을 감안 평균 9.5% 수준에서 8%로 인하
- 근로자재형저축에 대한 지준율 3%는 유지하고, 예·적금의 지준율만 인하
- 지준율 인하로 인한 통화량 증가를 막기 위해 2/4분기 동안증권 발행을 대폭 증가

○ 정부, 노사협력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방안 마련 4월중 시행(3.26)

-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시 용자한도 및 대출 금리를 우대
- 정부내 사업성 기금의 사용 및 외국인 산업연수인력의 배정에 우선권 부여
- 노사협력 우수업체의 선정을 위해 추천기관과 심사위원회 선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

○ 재정경제원, 주식장외시장 발전 방안 최종 확정(3.25)

- 4월부터 은행신탁계정의 장외시장 등록주식 매입 및 증권회사의 장외등록 주선 수수료율 자유화
- 장외등록기업중 주식분산우량업체의 직상장요건이 소액주주 2천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완화

○ 재정경제원, 해외증권투자 자유화(3. 25)

- 4월부터 일반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 대상 및 한도 제한 철폐
- 그러나 1개 증권 회사를 통해서 해야하고 개인은 10억 원, 일반 법인은 20억 원이상 투자시 국세청에 명단 통보

○ 재정경제원, 신용금고 합병촉진 방안 마련(3. 25)

- 신용금고의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금고간 합병을 유도하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 마련 4월 시행
-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매입대상 금고 자기자본의 1배이상,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 발생한 신용 금고는 같은 지역의 금고를 자유롭게 합병 가능

○ 재정경제원, 금융산업개편방안 등 금융정책 방향 제시(3. 23)

- 은행·보험·증권의 3대 금융권의 본업은 자회사 진출을 통해 가능하고(분업주의), 부수업무는 업무인가 확대를 통해 영위(겸업 허용)
- 투금, 종금, 리스, 신금 등 제2금융권 내부에서의 업무 영역을 조기에 철폐